

대중필자가 만든 포퓰리즘

포퓰리즘이 죄인가? 독선을 혐오하고, 선민적 가치에 저항하는 것이
라면 결코 유죄일 수 없다. 선천적 엘리트즘 대신 후천적 '영웅주의'가
할거하는 이 시대 마냥, '전문가 독점' 아닌 '전문가의 보편화'로 옮겨
가는 모습을 우린 지금 본다. 아마추어리즘과 프로페셔널의 경계가 무너지고,
열어지는 현상을 드물지 않게 본다. 그 틈새에서 전문가 랍치는 대중필자의 중
횡무진이 지금 출판 현장의 또다른 삽화다.

대중필자, 그들이 몰려온다

귀여니? 경박하다 해도 좋고, 값없다 해도 좋다. 그저 대중은 그런 대중적 필자
의 눈높이가 좋기만 하다. 니몰이? 누군지는 몰라도 그의 《2000원으로 밥상 차
리기》 앞에서 고색장연한 '전문가'는 무색해질 법하다. 그 함의나 가치를 따지
기에 앞서, 대중필자 전성시대는 분명 출판문화 한 가운데에 자리한 현재 진행
형의 한토막 역사다. 그래서 묻지 않을 수 없다. 대중필자 당신들은 누군가? 당
신들의 천국이 빛을 출판 포퓰리즘은 과연 유죄인가, 무죄인가?

21세기는 지난 20세기와 어떻게 다른가? 출판계 상황을 보면 몇 가지 확실히 달라진 것이 있다. 거대자본에 의한 출판의 기업화 및 다국적 출판사의 출현, 실생활에 기반한 전문서적이 상상력의 산물인 문학서적을 압도하는 현상, 시각적인 효과를 노리는 책 편집의 중요성 제고(예전에는 표지 디자인이 중시되었지만 지금은 본문이 화려한 책들이 많다), 인터넷 서점을 통한 책 구입 등.

또 하나의 특징은 무명의 작가가 전문서적을 집필, 출간하는 현상이다. 이 현상을 확실히 자리매김한 사람은 박영규 씨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독일어와 철학을 전공한(복수전공을 했지, 대학원에는 문턱에도 가지 않았다) 그는 1996년에 《한 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을 펴냈는데, 이 책은 지금까지도 나가고 있는 장기 베스트셀러이다. 수많은 역사학자들도 생각하지 못한 책을 기획력과 필력으로 만들어 독자의 사랑을 받고 있다.

최근에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내린 책 가운데에는 무명의 저자가 낸 것이 많다. 책을 내기 전에는 무명이었던 사람이 전문서적을 내어 일약 화제의 중심에 서는 경우도 있다. 대학에서 한국화를 전공했으면 그림을 그리는 것이 정도(?)일 텐데 요리책 《2000원으로 밥상 차리기》라는 책을 내어 요리 전문가로 나선 사람이 있다. 세계 대중음악계의 영웅 비틀즈의 초기 모습을 세밀하게 연구하여 《신화가 된 이름 The Beatles》를 쓴 사람은 팝 칼럼니스트가 아니라 공대를 나온 공학도이다. 현재의 직업은? LS산전에 근무하는 셀러리맨이다.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월급을 받는 셀러리맨 김태훈 씨는 웬만한 사학자도 쓰기 어려운 역사서 《이순신의 두 얼굴》을 썼다. 방대한 분량의 사료를 어떻게 찾아냈는지, 그 탐구정신이 놀라울 따름이다.

조금 다른 경우이지만 전문가들이 혀를 내두르는 책이 적지 않다. 《정본 운동주 전집 원전 연구》는 국문학과 대학원에서 석사를 받은 사람이, 《딱정벌레 왕국의 여행자》는 생물학과를 나온 젊은이가 펴냈는데, 그 반면에서 수십 년 공부한 사람이 봐도 감탄사를 연발할 만큼 학문적 깊이가 있는 내용이다.

남성으로는 드물게 육아휴직을 하고 결국에는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의 재미에 빠져 《효원이 잘 커요?》를 낸 이가 있는데, 많이 바뀐 우리 시대의 풍속을 알게 한다. 홍청망청 대책 없이 살던 방송작가 “죽자살자 아끼고 아끼” 1,024일 만에 1억800만 원을 모아 그 이야기를 《나는 남자보다 적금통장이 좋다》라는 책으로 만들어 또 다른 유명세를 누린 적도 있다. 하지만 이런 책의 가치에 대해서는 일말의 회의가 든다.

대중의 기호를 포착하는 기획물은 이제 전문가가 아닌 아마추어의 손으로 넘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지만 책의 값어치를 따질 때, 순발력을 자랑하는 베스트셀러는 많이 나오지만 꾸준히 독자의 사랑을 받는, 혹은 폭넓은 독자군을 형성하는 스테디셀러는 잘 나오지 않고 있다. 책의 생명력은 기획력으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역시 책이란 저자의 혼이 실려야 한다. 땀의 결과물이 아니고 화제성만 띠었다 사라진다면 그것은 양서가 아니라 단지 책일 뿐이다. 우리는 시청률이나 조회수, 혹은 판매고에 지나치게 민감한데, 그 작품의 '작품성'이 더 중요함을 알아야 한다.

필자의 층이 두터워지고 그에 따라 독자층이 다양해졌다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면으로 보인다. 그런데 책이란 것이 학자와 작가의 전유물인 시대가 갔다고 하여 전문성과 필력이 없는 사람이 너나없이 책을 내는 현상을 좋게만 보기는 어렵다. 조금 특이한 체험을 한 사람이라고 하여 손쉽게 책을 내는 풍조가 만연된다면 그 책은 1회용 종이컵의 운명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



대중필자 전성시대의 의미